

## ‘윤 정권 심판’ 만 외치는 민주 후보들 ‘정책 실종’

예비후보 등록·출마선언 잇따라  
“지역발전 대안 없다” 비판도  
국힘, 체계적 대책 수립 대조적  
“비전 제시 통한 경쟁 이어가야”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정책선거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여야는 각각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정권 심판’에만 매몰된 채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이렇다할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8개 선거구에 39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민주당 공천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중 21명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아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후보자 A씨는 “민생을 외면한 무능한 정권과 싸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 승리를 이뤄내고, 겸

철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B씨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라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 검찰공화국을 제대로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선언문이 출마 예정 지역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현 정권 심판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천을 의식해 ‘이재명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을 포함해 민주당의

모든 총선 정책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집중돼 있다”며 “내부적 변화와 쇄신 없이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에만 의존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바뀔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여기에 이재명 체제에 안주하고 과잉 충성하는 예비후보자들의 태도 역시 여당의 ‘정권 안정론’에 힘을 보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내 여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조직 활성화 방안, 인재영입, 책임당원 확보, 총선 공약 및 정책 발굴,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4월 총선 필승 각오를 다졌다.

중앙당 역시 호남 출신 인재 발굴을 강조하며 지역 내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지역 내 정치 전문가는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곧 총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약보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며 “특히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총선이 지역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지, 민주당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나.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엔 시기상조일 순 있지만 예비후보자들 모두 당원에 감성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지역을 위한 정책·비전 제시를 통한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 한파·대설 특보... 광주·전남 최고 30cm 눈

“약한 구조물 붕괴 등 피해 유의”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한파·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1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오겠다.

2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전남 서부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 적설량은 영광 8.1cm, 영암 4.0cm, 광주(광산) 3.7cm, 장성 2.1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20일 광주와 전남(담양·무안·함평·영광·신안·장성·해남·진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오후 9시부터는 곡성·구례·화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20~21일 광주와 전남서부 지역 예상 적

설량은 5~20cm로, 전남 북서부 지방은 최고 30cm 이상 눈이 내리겠다.

광주·전남 서부지역에는 22일 밤까지 눈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분간 영하권 날씨도 이어진다.

이날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일과 22일 아침 기온은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하 2~3도였으며, 21일과 22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1도로 예상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무거운 눈에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한파·대설 특보가 내려진 20일 퇴근길 시민들이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폭설을 피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 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 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